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4돐을 맞으며

충청의 200일전투로 날이 밝고
해가 지는 조국강산에 뜻깊은 날이
밝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때로부터 4돐!

절세위인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새겨간게 되는 7월의 언덕에 세리 풀비운 낙과 달, 한해한해가 더욱 가슴벅차고 걸어온 자유자주가 더없이 소중하게 애처와 친원의 실상 드겁다.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4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4년간에 40년, 400년 맞ество로 비약하던 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변화를 이룩하였고 지금도 아침파 저녁, 이제와 오늘은 다르게 태 7 차대회 결정판을 위한 200일전투로 거창한 모습들을 절쳐가고 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다. 만한 걸림과 강철의 의지, 세련된 명도력과 대량한 전개력, 활랑한 실성력을 지닌 절세의 위인이 애쓰는 뿐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은원수님, 대양의 성스러운 그 존함 삼가 부르며 대무령장의 4년 강행군실록을 궁지 놀이 들어쓰는 우리 군과 인민의 기슴에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모든 승리와 행복이 온다 는 철의 진리를 지켰다. 그럼 수록 그이는 강대한 조선의 힘이고 승리의 가치이시라는 체험의 목소리가 떠져나온다.

위대한 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시었다.

『김정은동지를 잘 밟았느냐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주제 101(2012)년 7월에 펼쳐졌던 적동적인 회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

강대한 조선의 힘, 영원한 승리의 가치

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에 절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로 축제였다. 전국도처에서 결의대회와 경축대회, 결의모임이 진행되고 훌륭의 신심에 넘친 천안군민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점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풍락국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것은 위대한 천출명장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탑없는 흥보와 정승,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의 분출이었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린 힘과 의지였다.

『2012년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양양한 전도를 막상한에 예고하고 백두산대국과 세계자주주의 앞길을 축제로 축제로 펼쳐졌다.』

인민기자회견 『평양성-3』호 2호기의 성과평론!

그것은 김일성同志,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경작으로 만반의 천축전에 대한 승리의 힘과 있는지도...』

주제 101(2012)년에 남조선과 해외同胞들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과 인사들이 경관축에 정한 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훈련 발걸음은 누리를 점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도 새로 운 주제 100년대의 청래를 빛나게 충화하며 선군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끌고 달려온다. 그이는 적들의 발악적 몽세에 제3차 치하역시험으로 반란을 가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편이 어려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끝까지 헤쳐나온 원수님의 훈련 발걸음은 누리를 점감하였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모한 합동훈련을 벌여놓은데 이어 또다시 현장동원훈련이 따라

졌다. 1월 21일, 인공지구워

『평양성-3』호 2호기의 성

공적으로 펼쳐진에 정확히 펼쳐졌다.』

주제 103(2014)년 4월 적

들은 대규

리평규영웅처럼 당파 운명의 피줄을 잊고 사는 참된 신념의 인간이 되리

《로동신문》 7월 11일부에 실린 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에 대한 각계총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나 봉묘하지 않고 험난한 해외의 한길을 걸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업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세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애국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는 지금 우리 로동계급과 일군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실상을 두 번히 말구어주고 있다.

하민신불구의 물으로 30여년세월 깊숙은 애국헌신의 자속을 새겨온 조동지영웅 풍물. 불구가 되었다고 로동을 포기할것이 아니라 당시 준 실장이 고통되는 한 영원히 계급의 마리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로 자기를 지켜냈고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성격을 자랑스럽게 파악한 그는 우리 세대, 로동당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인간형이며 그의 억센 신념과 견인불발한 삶은 누구나 분발아이 할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 있다.

불굴의 삶으로 고귀한 진리를 증명한 철의 인간

김종래 전기기판화업소 직장장 팀호동무는 하루이틀 아니면 30여년세월을 밟아나선것은 참된 인간, 짐짜기로 동계급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남역전광 경장 차동화동무는 기사를 읽은 후부터 편광의 설비 텐데, 동별무 아니도 걸고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실정을 이렇게 놀라워했다.

로동당의 품속에서 자마난 인

간이 얼마나 역사인민을 증명하는 힘으로 동계급을 소개한 《로동신문》을 적정직에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동당의 품속에서 자마난 인간이 얼마나 역사인민을 증명하는 힘으로 동계급을 소개한 《로동신문》을 적정직에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종숙 양예사공장 직장장

리성임동무는 리평규동무가 만사람의 감동과 친환경을 자마나는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당이 안전운 실장이 고통되는 한 토목계급의 본분을 다하였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숙 양예사공장 직장장 리성임동무는 리평규동무가 창업혁명투사 촌촌국동지의 최후의 5분을 둘이켜보며 자신을 탐험한 심장을 그린 대목에서 받은 감명이 커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인간의 최후는 한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귀한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창업혁명투사들처럼 로동당원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를 그리고 힘으로 금은 유태적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생명의 힘으로 일한다는 것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리평규동무는 친환경 인간이라고 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봉성기계련합기기소 선군주 천공장 지배인 려경일동무는 리평규동무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신념의 메아리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공연을 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 해 해치며 쌔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험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한민족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떠박쳐서 기고있다.

혁명은 끈 신념, 신념은 끈 승리

당의 명도의 손길 아래 『파비단』식 혁명가극의 첫 포성으로 20세기 문부통을 안이 오는데 이마지 한 파비단과 국단은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판중축에서 날이 갈수록 폭풍같은 만황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가족장조집단은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여 노래와 음악형상으로부터 무대장치와 조명, 의상과 분장, 음향조절에 이르기까지 전방적인 무대형상을 높이는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이들은 한달에 15회 이상의 가족공연을 보장하기 어려다는 기성판례를 깨뜨리고 매달 20여회의 퍼포먼스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가족은 시작부터 신념과 배신, 부정과 변절의 심각한 구구성으로 대번에 판중을 사나운 바탕이 돌아이면 1940년대로 이끌어간다.

하지 않는 최희숙동지를 사령장에 끊어낸 악귀 같은 원쑤들은 최후의 순간에 공산주의의 심장이 어떤 인가를 보겠다고 그의 심장을 도려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혁명가의 실정이 조국과 민족, 혁명 동지를 위해 고동친다면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자신임을 위해 고동친다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막을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라며, 자기 위엄의 정당성과 진리를 성을 확신하는 사람임만이 할수 있는 말이며 혁명절개가 강한 무사들만이 할수 있는 면언이라고, 그 말은 너루시 최희숙의 눈물겨운 모습에서도 혁명가의 지조를 끗듯이 지켜내는 최희숙 풍자에 가슴에는 흘러온다.

일제의 간교한 징벌로 날조된 남제의 전황소식앞에서도, 남의 눈치 방을 먹으며 부모를 예타에 그리는 어린 팔자식의 눈물겨운 모습에서도 혁명가의 지조를 끗듯이 지켜내는

최희숙 풍자에 가슴에는 흘러온다.

우리의 귀전에 지금도 둘려온다. 사회가 발전하고 학사가 전진하면 인간생활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때년을 살고 천년을 살아도 주호도 면하지 말아야 할것은 우리의 혁명적신념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이…

그렇다. 혁명은 끈 신념이며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가의 실장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을 위하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발드는 한걸음에서

변함없이 고동쳐야 한다는것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절체보인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판중들에게 우리

자들의 한걸음은 반영이었다.

분만이니라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원짜하고 특히 가극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기를 진실화해 수행하였다. 『파비단』식 혁명가극의 첫 흥보는 예술단체가 파견된다. 우리 가극은 술이 도달한 높이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격찬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깊은 어운을 안겨주는 것은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에 기초한 혁명신념은 대를 두고 이어가야 한다는 참된 권리

에 대한 존중으로 새롭게 새겨주고 있다.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사를 자랑하고 있

지만 오늘처럼 변한 때는

없었으며 조국의 산현이 오

직히 아름답게 가꾸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습

니다.』

선군혁명정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 98(2009)

년 10월 13일 새로 꾸려진

묘향산 유원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판자

에게 모든 명소들에 다가볼수

있게 하자면 탐사도로를 잘

닦았던 힘방을 드리자고 하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

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향해 하게 받았던 것은

그날의 원수들이

제대로 된 힘방을 드리자고

시작하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수령에 대한

변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날의 간악한 원수들의 만

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았으

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원수

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

직하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일

민보위를 지지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용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